



2026
완성

2026 완성 국어 문학 유형 연습 1 | 가는 길, 우리가 물이 되어

이 서적은 「저작권법」에 따라 보호됩니다. 본 자료의 무단 배포, 도용 시, 저작권법에 의거하여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.

지문 분석

(가)

≤ [그립다](화자의 심정을 단적으로 표현함.)

말을 할까

하니(행을 의도적으로 분리하는 행간 결점으로 망설임의 감정을 표현함. '말을 할까 하니 / 그리워'라고 했을 때보다 시간적 거리감을 주어 화자의 망설임을 잘 드러냄. 3음보의 민요적 율격으로, 한 행에 1음보를 배열함. **이 시의 표현상의 특징을 묻는 문제가 출제될 수 있습니다.**) 그리워]([]: 그립다는 말을 할까 생각하니 그리움이 더욱 사무친다는 심정을 고백하고 있음.)

▶ 1연: 이별의 안타까움

그냥 갈까(화자의 내적 갈등. 망설이는 화자의 태도가 드러남.)

그래도

다시 더 한 번.....(말줄임표를 통해 미련과 여운이 드러남. **말줄임표의 효과를 묻는 문제가 출제될 수 있습니다.**) ≥(<: 내면 심리. 한 행에 각각 1음보를 배열하여 낭독의 속도를 늦추고(시의 호흡을 느리게 하여), 그리움과 아쉬움으로 망설이는 화자의 내면적 갈등이 잘 드러나게 함. **시의 호흡과 관련한 문제가 출제될 수 있습니다.**)

▶ 2연: 망설임과 갈등의 심화

≤ [저 산에도 까마귀](어둡고 슬픈 이미지로 이별의 분위기 조성. 화자에게 이별을 재촉하는 대상으로 이별의 안타까움을 심화함. 화자의 감정과 일치하지 않는 객관적 상관물), 들에 까마귀,]([]: 유사한 구조 반복)

서산에는 해 진다고(시간적 배경. 이별이 다가옴.)

지저깁니다.(청각적 이미지. 이별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음을 알림.)

▶ 3연: 떠나기를 재촉하는 까마귀

[앞 강물](시간의 흐름을 나타내는 소재. 이별의 이미지를 지니는 소재. 화자에게 이별을 재촉하는 대상으로 이별의 안타까움을 심화함. 화자의 감정과 일치하지 않는 객관적 상관물. **시에 나오는 객관적 상관물과 관련하여 문제가 출제될 수 있습니다.**), 뒷 강물,

흐르는 물(끝없이 흐르는 시간 및 이별의 이미지로 인간의 의지로 극복할 수 없는 한계를 의미함.)은

어서 따라오라고 따라가자고(유사한 구조 반복. 이별을 재촉하여 이별의 아픔을 심화함.)

흘러도 연달아 흐립디다려.(‘흐립디다그려’의 준말. 평북 방언)]([]: 전반적으로 유음과 비음을 사용하여 음악적 효과를 거두고 있고, 특히 4연에서 많이 사용됨.) ≥(<: 외적 상황. 후경. 한 행에 1~3음보를 배열하여 낭독의 속도를 높이고(시의 호흡을 빠르게 하여), 떠나기를 재촉하여 이별의 정한을 심화하는 외연적 상황을 더욱 효과적으로 표현하였음. 1, 2연과 3, 4연이 대조를 이루어 이별의 아쉬움과 임에 대한 그리움이라는 주제를 더 효과적으로 드러냄.)

▶ 4연: 따라오라고 재촉하는 강물

- 「가는 길」

(나)

우리가 물(생명력, 포용력 등을 가진 존재. (가)의 '강물'과 연계한 문제가 출제될 수 있습니다.)이 되어 만난다면(가정법의 형식으로 간절한 소망을 표현함.)

가문 어느 집(오랫동안 비가 오지 않아 메마른 집들. 메마르고 비정한 현대 사회의 모습)에선들 좋아하지 않으랴.
우리가 키 큰 나무(넉넉한 생명력을 지닌 존재로, 우리의 현실적 문제를 함께 해 줄 수 있는 존재)와 함께 서서
우르르 우르르(음성 상징어) 비 오는 소리로 흐른다면.

▶ 1연: 물이 되어 만나기를 소망함.

흐르고 흘러서 저물녘(삶을 성찰하는 시간)엔
저 혼자 깊어지는(성찰을 통해 보다 성숙해지는 상황) 강물에 누워
죽은 나무뿌리(척박한 메마른 현실)를 적시기도 한다면.
아아,(영탄법. 시의 표현상의 특징을 묻는 문제가 출제될 수 있습니다.) 아직 처녀(순수성, 원시성을 상징)인
부끄러운 바다(이상향)에 닿는다면.

▶ 2연: 생명력을 회복하고 삶의 의미를 되찾기를 소망함.

그러나(시상의 전환. 시상의 전환이 일어나는 부분을 묻는 문제가 출제될 수 있습니다.) 지금 우리는
불(죽음, 소멸, 파괴의 이미지)로 만나려 한다.

벌써 숯이 된 뼈(① 부정적인 것들이 사라진 후 남은 새로운 생명력 ② 부정적인 현실을 정화하기 위해 자신을 불태운 희생적 존재) 하나가
세상에 불타는 것(① 불에 의해 소멸해 가는 것들 ② 부정적 현실을 정화하기 위해 현재 자신을 불태우고 있는 희생적 존재)들을 쓰다듬고 있나니

▶ 3연: 불이 되어 만나야 하는 현재의 상황

만 리(萬里) 밖에서 기다리는 그대(조화와 합일을 위해서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)여
저 불 지난 뒤(부정적인 것들이 다 타 버린 후)에
흐르는 물(조화로운 합일. 충만한 생명력)로 만나자.
푸시시 푸시시(음성 상징어) 불 꺼지는 소리로 말하면서
울 때는 인적 그친
넓고 깨끗한 하늘(이상향. 시어의 의미를 묻는 문제가 출제될 수 있습니다.)로 오라.

▶ 4연: 불이 지난 뒤에 물로 만나고 싶은 소망
- 「우리가 물이 되어」

(가)

핵심 정리

- 갈래: 자유시, 서정시
- 성격: 전통적, 민요적, 애상적, 서정적
- 주제: 임과의 이별
- 운율: 내재율(3음보, 7·5조의 민요적 율격)
- 특징
- 선정후경(先情後景)의 구조를 취함.



2026
완성

2026 완성 국어 문학 유형 1 | 가는 길, 우리가 물이 되어 문제

이 서적은 「저작권법」에 따라 보호됩니다. 본 자료의 무단 배포, 도용 시, 저작권법에 의거하여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.

【1~6】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.

(가)

그립다

말을 할까

하니 그리워

그냥 갈까

그래도

다시 더 한 번……

저 산(山)에도 까마귀, 들에 까마귀,
서산(西山)에는 해진다고 지저웁니다.

앞 강(江)물, 뒤 강(江)물, 흐르는 물은
어서 따라오라고 따라가자고
흘러도 연달아 흘伟大复兴다려.

- 「가는 길」

(나)

우리가 물이 되어 만난다면
가문 어느 집에선들 좋아하지 않으랴.
우리가 키 큰 나무와 함께 서서
우르르 우르르 비 오는 소리로 흐른다면.

흐르고 흘러서 저물녘엔
저 혼자 깊어지는 강물에 누워
죽은 나무뿌리를 적시기도 한다면.
아아, 아직 처녀인
부끄러운 바다에 달는다면.

그러나 지금 우리는
불로 만나려 한다.
벌써 숯이 된 뼈 하나가
세상에 불타는 것들을 쓰다듬고 있나니

만 리 밖에서 기다리는 그대여
저 불 지난 뒤에

흐르는 물로 만나자.

푸시시 푸시시 불 꺼지는 소리로 말하면서
울 때는 인적 그친
넓고 깨끗한 하늘로 오라.

「우리가 물이 되어」

1. (가)의 '강물'과 (나)의 '물'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?

- ① (가)의 '강물'과 (나)의 '물'은 모두 화자가 소망하는 이상적 세계를 상징한다.
- ② (가)의 '강물'은 이별을 재촉하는 소재이고, (나)의 '물'은 생명력의 회복을 의미하는 소재이다.
- ③ (가)의 '강물'은 자연의 광대함을, (나)의 '물'은 소멸하는 자연의 안타까움을 나타낸다.
- ④ (가)의 '강물'은 화자의 슬픔을 위로하는 역할을 하고, (나)의 '물'은 화자의 고통을 심화하는 역할을 한다.
- ⑤ (가)의 '강물'은 정적인 이미지를, (나)의 '물'은 동적인 이미지를 통해 시적 의미를 형성한다.

2. (가)와 (나)의 표현상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?

- ① (가)는 시행의 길이를 조절하여 화자의 심리와 상황을 드러내고 있다.
- ② (나)는 대립적인 시어를 활용하여 주제 의식을 강조하고 있다.
- ③ (가)와 (나)는 모두 청각적 이미지를 사용하여 시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.
- ④ (가)와 (나)는 모두 가정의 방식을 통해 화자의 소망을 나타내고 있다.
- ⑤ (가)와 (나)는 모두 특정 시어의 반복을 통해 운율감을 형성하고 있다.

3. (가)의 표현상의 특징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?

- ① 선정후경(先情後境)의 구조를 취하고 있다.
- ② 민요적 율격을 통해 리듬감을 부여하고 있다.
- ③ 울림소리를 이용해 음악적 효과를 거두고 있다.
- ④ 공감각적 이미지를 통해 상황을 강조하고 있다.
- ⑤ 행간 걸침으로 시적 화자의 심리를 부각하고 있다.

4. (가)에서 시행 배열이 주제 전달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?

<보기>

- ㉠ 그립다
말을 할까
하니 그리워
- ㉡ 어서 따라오라고 따라가자고
흘러도 연달아 흐릅디다려.

- ① ㉠은 3음보이며, ㉡은 4음보이다.
- ② ㉠은 내면 심리를 보이며, ㉡은 외적 상황을 보인다.
- ③ ㉠에서 이별을 재촉하고 있으며, ㉡에서는 망설임이 보인다.
- ④ ㉠은 빠른 호흡으로 읽으며, ㉡은 느린 호흡으로 읽으면 좋다.
- ⑤ ㉠은 상당히 안정감이 있고, ㉡은 의도적인 엇박을 통해 긴장감을 유발하고 있다.

5. (나)를 감상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?

- ① '강물'에서 '바다'로의 공간 확장을 통해 현실과 이상의 괴리를 보여주고 있다.
- ② '저 혼자 깊어지는 강물'과 '만 리 밖'이 지닌 의미가 연결되어 삶의 유한성을 환기하고 있다.
- ③ '만난다면', '흐른다면' 등의 가정법을 반복적으로 사용하여 과거에 대한 후회를 강조하고 있다.
- ④ '키 큰 나무', '죽은 나무뿌리', '숯이 된 뼈'는 모두 메마른 현대 사회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.
- ⑤ '우르르 우르르', '푸시시 푸시시'는 청각적인 이미지를 통해 생동감을 자아낸다.

6. (나)에 나타난 시적 화자의 태도로 가장 적절한 것은?

- ① 역설적 표현을 통해 화자가 처한 현실의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.
- ② 순수한 사랑을 성취하기 위한 열정을 시각적으로 보여 주고 있다.
- ③ 자신의 상황을 운명론적으로 받아들이려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.
- ④ 사랑하는 대상과 인연을 맺지 못하는 안타까움을 드러내고 있다.
- ⑤ 완전한 합일과 생명력이 충만한 세계를 소망하고 있다.

【7~12】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.

(가)

- ㉠그립다
말을 할까
하니 그리워
- 그냥 갈까
그래도
다시 더 한 번㉡.....

저 산(山)에도 까마귀, 들에 ㉠까마귀,
서산(西山)에는 해진다고 ㉡지저겁니다.

앞 강(江)물, 뒤 강(江)물, ㉠흐르는 물은
어서 따라오라고 따라가자고
흘러도 연달아 흐릅디다려.

- 「가는 길」

(나)

우리가 물이 되어 만난다면
가문 어느 집에선들 좋아하지 않으랴.
우리가 키 큰 나무와 함께 서서
우르르 우르르 비 오는 소리로 흐른다면.

흐르고 흘러서 저물녘엔
저 혼자 깊어지는 강물에 누워
죽은 나무뿌리를 적시기도 한다면.

아아, 아직 처녀인
부끄러운 바다에 닿는다면.

그러나 지금 우리는
불로 만나려 한다.
벌써 숙이 된 뼈 하나가
세상에 불타는 것들을 쓰다듬고 있나니

만 리 밖에서 기다리는 그대여
저 불 지난 뒤에
흐르는 물로 만나자.
푸시시 푸시시 불 꺼지는 소리로 말하면서
울 때는 인적 그친
넓고 깨끗한 하늘로 오라.

– 「우리가 물이 되어」

8. <보기>를 바탕으로 (가)와 (나)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?

<보기>

문학 작품 속 화자는 외부 세계와의 관계를 통해 자신의 정서나 태도를 드러낸다. 때로는 외부 세계가 화자의 의지와 무관하게 흘러가면서 화자의 안타까움을 심화시키기도 하고, 때로는 화자가 외부 세계에 적극적으로 관여하여 자신의 소망을 투영하기도 한다.

- ① (가)에서 '저 산에도 까마귀, 들에 까마귀'가 '저 저귀'는 것은, 화자의 의지와 무관하게 이별의 시간이 다가오는 외부 세계를 보여주어 안타까움을 심화하는군.
- ② (가)에서 '흐르는 물'이 '어서 따라오라고 따라가자고' 하는 것은, 인간의 의지로 거스를 수 없는 시간의 흐름 앞에서 화자가 느끼는 이별의 정한을 깊게 만드는군.
- ③ (나)에서 '가문 어느 집'에 '물'이 되어 흘러간다고 상상하는 것은, 화자가 외부 세계에 적극적으로 관여하여 생명력을 불어넣고자 하는 소망을 투영한 것이군.
- ④ (나)에서 '죽은 나무뿌리를 적시기도 한다면'이라고 말하는 것은, 부정적 현실을 상징하는 외부 세계를 외면하지 않고 그것을 치유하고자 하는 화자의 의지를 보여주는군.
- ⑤ (가)의 화자는 '강물'의 흐름에 순응하며 이별을 받아들이고, (나)의 화자는 '불'의 이미지에 저항하며 만남을 추구하는군.

7. (가)와 (나)의 화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?

- ① (가)의 화자는 (나)의 화자와 달리 이별의 상황을 담담하게 수용하고 있다.
- ② (나)의 화자는 (가)의 화자와 달리 대상과의 만남에 대해 회의적인 태도를 보인다.
- ③ (가)의 화자는 과거를, (나)의 화자는 미래를 중심으로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.
- ④ (가)의 화자는 내적 갈등을 드러내고 있고, (나)의 화자는 현실 극복 의지를 보이고 있다.
- ⑤ (가)와 (나)의 화자 모두 자연물을 통해 자신의 감정을 이입하여 표현하고 있다.

정답 및 해설

1. 정답 ②

(가)의 '강물'은 '어서 따라오라고 따라가자고' 흘러가며 화자에게 이별을 재촉하고 시간의 흐름을 인식하게 하여 슬픔을 심화하는 소재이다. (나)의 '물'은 '가문 어느 집', '죽은 나무뿌리'를 적시는 생명력의 원천이자, 모든 것이 정화된 후 도달할 조화와 합일의 상태를 의미한다.

① (가)의 '강물'은 이별을 재촉하는 부정적 기능을 하므로 이상적 세계가 아니다.

③ (가)의 '강물'은 시간의 흐름을 나타내는 소재로 이별을 재촉하는 시어이며, 자연의 광대함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다. (나)의 '물'은 생명력, 포용력 등을 가진 존재로 소멸하는 자연의 안타까움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다.

④ (가)의 '강물'은 위로가 아닌 재촉의 역할을 한다. (나)의 '물'은 화자가 소망하는 긍정적 대상이다.

⑤ (가)의 '강물'과 (나)의 '물'은 모두 '흐르는' 속성을 지닌 동적인 이미지이다.

2. 정답 ④

(나)는 '우리가 물이 되어 만난다면'과 같이 가정의 방식을 통해 소망을 표현하지만, (가)는 이별의 상황에서 느끼는 화자의 심리를 직접적으로 토로하거나 외부 풍경을 묘사할 뿐, 가정의 방식을 사용하여 소망을 드러내고 있지는 않다.

① (가)는 1, 2연의 짧은 시행과 3, 4연의 상대적으로 긴 시행을 대비하여 화자의 내면적 갈등(망설임)과 외면(재촉)의 상황을 효과적으로 표현하고 있다.

② (나)는 '물'(생명, 조화)과 '불'(소멸, 정화)이라는 대립적 시어를 중심에 두고 시상을 전개하며 주제를 선명하게 드러낸다.

③ (가)는 '지저귐니다'에서, (나)는 '우르르 우르르', '푸시시 푸시시' 등에서 청각적 이미지를 활용한다.

⑤ (가)는 '그립다', '까마귀', '강물' 등의 시어를, (나)는 '물', '흐른다면', '불' 등의 시어를 반복하여 운율을 형성하고 의미를 강조한다.

3. 정답 ④

위 시에서 공감각적 이미지는 찾을 수 없다.

① 1~2연에서 이별의 내면적 상황을, 3~4연에서 이별의 외면적 상황을 표현하고 있으므로 선정후경(先情後境)의 구조를 취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.

② 3음보, 7·5조의 민요적 율격을 통해 리듬감을 부여하고 있다.

③ 유음 'ㄹ'과 비음 'ㄴ, ㅇ, ㅁ'과 같은 울림소리를 이용해 음악적 효과를 거두고 있다.

⑤ '그립다 / 말을 할까 / 하니 그리워'에서 행간 걸침을 사용하여 화자의 망설임의 감정을 표현하였다.

4. 정답 ②

㉠은 화자의 망설임과 같은 내면 심리가 드러나며, ㉡은 이별을 재촉하는 외적 상황이 나타난다.

① ㉠과 ㉡ 모두 3음보이다.

③ ㉠에서 이별에 대한 망설임이 나타나며, ㉡에서 이별을 재촉하는 상황이 나타난다.

④ ㉠이 느린 호흡, ㉡이 빠른 호흡으로 읽으면 좋다.

⑤ ㉠과 ㉡ 모두 3음보의 안정된 운율을 나타낸다.

5. 정답 ⑤

'우르르 우르르', '푸시시 푸시시' 등의 의성어는 청각적 표현으로 생동감을 주며 내용을 보다 선명하게 인식하도록 해주므로 적절하다.

① '바다'는 화자가 원하는 이상향이므로, '강물'에서 '바다'로의 공간 확장을 통해 현실과 이상의 괴리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.

② '저 혼자 깊어지는 강물'은 성찰을 통해 보다 성숙해지는 상황을 말하며 '만 리 밖'은 조화와 합일을 위해서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는 의미이므로 적절하지 않다.

③ 이 시에서 화자는 가정법을 반복적으로 사용하여 화자의 간절한 소망을 표현하고 있다.

④ '키 큰 나무'는 넉넉한 생명력을 지닌 존재로, 우리의 현실적 문제를 함께 해 줄 수 있는 존재이며, '죽은 나무뿌리'는 척박한 메마른 현실을 의미한다. '숯이 된 뼈'는 부정적인 것들이 사라진 후 남은 새로운 생명력과 부정적인 현실을 정화하기 위해 자

신을 불태운 희생적 존재이다.

6. 정답 ⑤

이 시의 시적 화자는 ‘넓고 깨끗한 하늘’이라는 이상적 공간을 소망하고 있다. 화자는 이 공간에서 완전한 합일과 생명력이 넘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.

- ① 이 시에서 역설법은 드러나지 않는다.
- ② 이 시에서 순수한 사랑을 성취하기 위한 열정은 드러나지 않는다.
- ③ 이 시에서 화자는 자신의 상황을 운명론적으로 받아들이려고 하기보다, 적극적, 능동적 자세로 만나고 싶은 열망과 만남에 대한 기대를 노래하고 있다.
- ④ 이 시에서 화자는 이별의 고통, 슬픔, 한스러움이 아닌 만나고 싶은 열망, 만남에 대한 기대를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자세로 노래하고 있다.

7. 정답 ④

(가)의 화자는 ‘그립다 / 말을 할까 / 하니 그리워’, ‘그냥 갈까 / 그래도 / 다시 더 한 번……’ 등에서 볼 수 있듯이 이별을 앞에 두고 떠나야 할지 말아야 할지 망설이는 내적 갈등을 겪고 있다. (나)의 화자는 ‘지금 우리는 / 불로 만나려 한다’, ‘저 불 지난 뒤에 / 흐르는 물로 만나자’ 등에서 부정적 현실을 극복하고 미래에 진정한 만남을 이루려는 적극적이고 의지적인 태도를 보인다.

- ① (가)의 화자는 망설임과 미련을 보이며 이별의 상황을 쉽게 수용하지 못하고 있다.
- ② (나)의 화자는 ‘흐르는 물로 만나자’고 말하며 만남에 대한 강한 희망과 기대를 드러내고 있다. 회의적인 태도와는 거리가 멀다.
- ③ (가)의 화자는 이별의 슬픔이 지배하는 현재 상황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. (나)의 화자는 현재(‘불’)과 미래(‘물’)를 대비하며 시상을 전개한다.
- ④ (가)의 ‘까마귀’, ‘강물’은 화자의 감정과 일치하지 않는 객관적 상관물이다. (나)에서는 자연물에 화자의 감정을 이입한 부분이 명확히 드러나지 않는다.

8. 정답 ⑤

(가)의 화자는 흘러가는 ‘강물’을 보며 이별을 재촉하는 안타까움을 느끼고 있을 뿐, 그 흐름에 순응

하여 이별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태도를 보이지는 않는다. 오히려 ‘다시 더 한 번……’이라며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. (나)의 화자는 ‘불’의 이미지에 저항하는 것이 아니라, 현실 정화를 위해 ‘불’이 되는 과정을 필연적인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다.

①, ② <보기>의 설명처럼 (가)의 ‘까마귀’와 ‘강물’은 화자의 슬픈 심정과 무관하게 흘러가는 외부 세계를 상징하며, 이를 통해 화자의 안타까움이 심화된다.

③, ④ <보기>의 설명처럼 (나)의 화자는 ‘불’이 되어 ‘가문 어느 집’과 ‘죽은 나무뿌리’를 적시는 상상을 통해, 외부 세계의 문제에 적극적으로 관여하여 생명력을 회복시키려는 소망과 의지를 보여준다.

9. 정답 ⑤

1, 2연은 한 행이 1음보를 이루고 있으므로 이별을 망설이는 화자의 심정을 담아 느리게 읽고, 3, 4연은 한 행이 3음보를 이루고 있으므로 이별을 재촉하는 외적 상황을 담아 빠르게 읽으면서 화자의 심리를 느낄 수 있다.

- ① 화자의 내적 갈등이 드러나지만, 대칭 구조로 표현된 것은 아니다.
- ② ‘까마귀’는 화자의 이별을 재촉하고 있으므로 화자가 바라는 상황을 암시하지 않는다.
- ③ (가)는 화자의 경험을 서사적으로 구성하고 있지 않으며, 시간의 흐름 속에서 변화하는 대상의 속성을 드러내고 있지 않다.
- ④ 시의 처음과 끝을 유사한 통사 구조로 반복한 수미상관 구조가 드러나지 않는다.

10. 정답 ③

Ⓐ은 화자에게 공감하며 화자를 위로하는 존재가 아니라 화자의 이별을 재촉하는 존재이다.

- ① Ⓛ은 화자의 심정을 직접적으로 표현한 시어이다.
- ② Ⓜ은 말줄임표를 통해 이별에 대한 화자의 망설임과 미련의 감정이 드러난다.
- ④ Ⓝ은 까마귀의 울음으로 청각적 심상이 나타나며 이별이 다가왔음을 느끼게 하고 이별을 재촉하고 있다.
- ⑤ Ⓞ은 시간의 흐름을 나타내며 인간의 의지로는 극복할 수 없다는 것을 강조한다.